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류와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검증*

조 정 아**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학교적응의 잠재유형을 파악하고, 각 잠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중1패널 제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과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석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잠재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이 갖는 특성에 따라 4개의 잠재유형은 각각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학교적응 잠재유형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성별, 자아탄력성, 부모감독, 부모애정, 또래의사소통, 또래소외, 지역사회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학교적응, 잠재유형,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 잠재프로파일분석

* 이 논문은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nicescholar@gmail.com

I. 서 론

학교는 청소년의 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장 환경이며 사회화 과정의 대행자이다(Shaffer, 1999).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는 해당 생애주기의 발달과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성취와 적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Bagwell et al., 1998) 점을 고려할 때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학교 부적응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부적응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진로성숙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 즉,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소외감과 우울이 심하며(조운숙·이경님, 2010), 위축·적대감·공포감으로 이어져 다른 심각한 부적응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며(노숙영, 1997),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무기력감의 형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Thompson, 1987; 이혜승, 2004). 또한 학교 부적응은 자살 생각과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김기환·전명희, 2000),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은 높은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김신애 외, 2008),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음(조미형 외, 2006) 특성을 보인다.

이렇듯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중요성으로 인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지금까지 학교적응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매김 해왔다. 청소년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학교적응이 다른 발달적 특성,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그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문은식·김충희, 2002; 김신애 외, 2008; 이경님, 2008; 김혜래·최승희, 2009; 박민경·서보준, 2011) 우선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나 문제행동 발생경로에서 학교적응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문제 행동 감소에 개입하고 여러 발달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도 있다. 이러한 기존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학교적응 요소에 기반한 패턴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대부분 성적이나 학교 만족도와 같은 단일 문항 또는 여러 구성요소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학교 적응을 측정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통해서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학교적응 측정 수준이 전반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위 구성요소별 적응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또한 Moffit과 Patterson과 같은 유형학 이론가들은 특정 행동발달 수준을 보이는 집단도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집단별로 관련된 고유의 원인 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한다(현안나,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다양한 하위 변수들이 갖는 특징적인 프로파일을 찾아내어 상호 관련된 패턴들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학교적응 유형화에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방법(person-centered approach)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패턴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분류되는지, 학교적응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특정 학교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학교 적응을 돕고,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영향요인

1) 학교적응 개념

그동안 수행된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학교적응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학교적응은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영역에 중점을 두어 측정되기도 하고(김영희, 2002; Kurde et al., 1995), 학교생활 만족도로 정의되기도 한다(이정윤·이경아, 2004). 또한 학교적응을 성적으로 대표되는 학업적 적응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등과 같은 전반적 적응도로 나누어 측정한 연구(정규석, 2004)도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 학교적응을 다룬 많은 연구들을 보면 학교적응을 단일 차원으로 보기 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학교적응을 학업적 차원의 적응 이외에도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학교 규칙 준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 적응 등 학교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을 함께 다루면서 학교적응의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를테면 유안진 외(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교사 적응, 교우 적응, 규칙 적응의 3개 하위 영역으로 정의하였고, 이규미(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그리고 학교생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정은·조미형(2007)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문제행동, 학교생활흥미, 학업성적의 세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여 정의하였다. 이경님(2008)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적응, 교내생활의 네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지 않고, 학교적응이 갖는 다차원적 요소로 측정하고자 한다. 즉, 학교적응을 학습활동, 학교규칙, 또래관계, 교사관계의 네 차원으로 살펴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주된 발달의 장인 학교에서 청소년이 학생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학업을 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또래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청소년 학교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생태체계적 요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학년(연령),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성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 이경님, 2008)와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이수경, 2004; 이용준, 2004; 신진희, 2005; Danielsen, 2009)로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학년(연령)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정미영·문혁준, 2007; 이경님, 2008; 김혜래·최승희, 2009) 역시 일관된 방향의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개인적 요인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을 일관된 방향으로 예측하는 변수로 비교적 많은 연구들에서 검증되어왔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순미·유형주, 2003; 신진희, 2005; 임수경·이형실, 2007; 이윤화, 2010; Aunola et al., 2000).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중에서 타 요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다뤄지기 시작했으나 최근에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윤주, 2004; 김옥선 외, 2005; 하현주 외, 2008; 하명순·이순복, 2009; 변은주·심혜숙, 2010; 광민경·서보준, 2011, 손보영 외, 2011; 이정화·고은영, 2011; 한신애·문시백, 2011). 이들 연구들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상에서 제시된 개인 요인 변수 외에도 흡연·음주 경험과 같은 지위적 비행이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오승환, 2009)도 있다.

둘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으로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가 주로 검증되어 왔다.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은 더욱 양호하며(김문혜·강문희, 1999; 도현심·최미경, 1998; 임성윤, 2006; Cheng & Furnham, 2004; Plunkett et al., 2007), 부모로부터 사랑, 관심, 격려 등을 받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정미영·문혁준, 2007).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생활과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적절하게 감독할 때 자녀의 문제행동은 적고, 이러한 부모 감독은 학교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황숙영, 2007; 이경남, 200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이 높고(이지민, 2009, 정윤미·장영애,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일수록 자녀들은 학교적응에 문제를 보인다(하명선·이순복, 2009). 또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은 중학교 초기에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결과(Bascoe et al., 2009)도 있다.

한편 부모 양육태도나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 변수 이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족의 물리적 배경 변수 역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Nash,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정미영·문혁준, 2007), 부모의 결혼 상태가 기혼인 경우가 다른 상태에 비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선, 1999). 이 상에서 제시된 가족 요인 변수 외에도 부부갈등이 자녀의 학교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권영옥·이정덕, 1996; 이진숙·정혜정, 2004; 정유진, 2000).

셋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 요인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또래애착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즉, 또래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며(문은정·심희옥, 2001; 문은식·김충희,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정규석, 2004; 정미영·문혁준, 2007), 또래로부터 수용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수록 학교적응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Shaffer, 1999), 또한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소외받거나, 공격 피해를 경험하게 될 경우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Parker & Asher, 1987, 최진희, 2000; 이정님, 2008).

넷째, 앞서의 세 가지 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진 편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별 소득 및 제반 환경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으로서(Karriker-Jaffem, 2006), 지역사회가 충분히 활성화될 경우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Coleman, 1988). 그러나 물질적, 문화적, 인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지역사회는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정소희·권유경, 2010).

우선 지역사회 특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요인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특성,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시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학교적응 수준이 높고(채경림, 2004), 집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형, 2006).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이상인 지역의 청소년들이 낮은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지위 효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한 후에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정소희·권유경, 2010).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venthal & Brooks-Gunn, 2000).

2. 청소년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류 선행연구

국내연구에서 아직까지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학교적응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학업성취 발달 유형이나, 학교부적응과 관련이 높은 일탈 잠재유형을 분류한 연구가 있다. 학업성취 발달궤적을 유형화하고 예측요인을 분석한 연구(정익중 외, 2011)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3년간 추적조사하여 학업성취평가 총점수의 발달 경향에 따라 상위유지형, 중간유지형, 하위유지형, 악화형, 상승형, 혼합형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탈 잠재유형을 분석한 현안나(2009)의 연구에서는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일탈 잠재유형을 세 집단 - 일탈집단, 저일탈 집단, 비일탈 집단 - 으로 분류하였다.

국의 연구에서는 유사한 연구가 소수이긴 하나 수행되었다. 우선 성학대를 받은 여자 아동의 학교부적응 잠재유형을 분류한 연구(Daignault & Hebert, 2009)가 있다. 연구결과 분석대상의 54%는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학교적응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학교 부적응 유형은 4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학업부적응 유형(academic specific class)로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수업을 따라가고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회피행동유형(withdrawn behavior class)로 회피행동과 외현화된 문제 행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다층적 임상대상 유형(polyclinical class)로 학업 수행의 어려움은 중간 정도로 심각하나 그 외의 행동상 문제는 제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적응유형(resilient class)로 모든 영역에서 부적응 수준이 제일 낮게 나타난 유형이다.

또 다른 유사 연구로는 독일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 잠재유형을 분류한 연구(Marsh et al., 2009)가 있다. 독일의 중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학생들 총 4,475명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 잠재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잠재유형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논문에서는 분류된 잠재유형에 대해서 별도로 유형 명칭을 붙여진 않았다. 첫 번째 유형은 전반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 구성요소들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프로파일을 갖고 있으며 언어적 자아개념이 수학적 자아개념보다 더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갖는 집단으

로 첫 번째 유형에 비해서는 학업적 자아개념 구성요소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이며 언어적 자아개념과 수학적 자아개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세 번째 유형은 높은 수준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갖는 집단으로 수학적 자아개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모두 평균에 비해 높은 값을 갖고 있다. 네 번째 유형 역시 높은 학업적 자아개념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유형에 비해 모든 요소가 평균에 비해 더 높은 값을 갖고 있다. 다만 예술적 자아개념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간 편차가 심한 특성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중간 정도의 학업적 자아개념 수준을 갖고 있다. 수학적 자아개념이 언어적 자아개념 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 반면 언어적 자아개념, 예술적 자아개념, 정치학 자아개념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목표 지향성 잠재 유형으로 구분한 연구(Pastor et al., 2007)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적의 잠재유형을 분류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대신 기존의 군집분석과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결과 2유형, 3유형, 4유형별로 프로파일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패널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2009년 4월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을 시행하여 선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며 전체 사례수는 2,351명이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2,349명¹⁾이다.

1) 주요 변수인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총 20개 문항중에서 결측치가 있는 2개 사례를 제외하였다.

2. 변수

1)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네 가지 각 요인 변수별(항목) 신뢰도 계수값은 교우관계 변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학습활동 적응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값은 .722, 학교규칙 적응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값은 .708, 교우관계 적응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값은 .548, 교사와의 관계적응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값은 .8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인별 측정 문항은 아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학교적응 측정 문항 내용

항 목	문 항
학습활동 적응	학교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학교규칙 적응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교우관계 적응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 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교사관계 적응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역코딩 문항

** 각 항목별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2) 학교적응 영향 요인 및 설정 근거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잠재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생태체계에 기반한 개인, 가족, 또래, 지역사회 체계의 변수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학교적응 잠재유형의 결정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생태체계적 변수들의 측정 문항은 아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개인 요인에 속하는 성별(남자: 1, 여자: 0)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수의 신뢰도 값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값은 .839, 부모감독의 경우 .760, 부모애정의 경우 .759, 또래의사소통의 경우 .757, 또래 소외의 경우 .627, 지역사회 인식의 경우 .7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생태체계적 변수 측정 문항

변수	문항	
개인	성별 남자(1), 여자(0)	
	자아탄력성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리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가족	부모감독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부모애정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신다.	

변수		문항
또래	또래의사소통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래소외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지역사회	지역사회인식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 역코딩 문항

** 각 항목별 척도는 4점 척도, 또래 소외의 경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 이 외의 변수들의 경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

학교적응 영향 변수를 위와 같이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성별 변수를 선정한 배경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성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거나, 발달상 영향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향후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개입 방안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자아존중감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검증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대신 자아탄력성을 개인 체계의 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의 특성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는 전이 시기는 큰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동후기에서 청소년기로 진행되는 발달적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Wooley & Grogan-Kaylor, 2006).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뀌면서 학교 환경과 생활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 시기를 경험하는 청소년

년들에게는 중요한 스트레스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는 긴장이나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점(Block & Kremen, 1996)을 감안할 때, 학교적응 잠재유형의 결정 요인을 검증하는 독립변수로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가족 체계요인 중에서는 부모 감독과 부모 애정 변수를 선택하였다. 이 두 변수는 모두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검증되어 왔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또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 관심과 보살핌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 잠재유형의 결정 요인으로 선정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래 체계 요인 중에서는 또래들과의 의사소통과 또래들로부터 소외 변수를 선택하였다. 또래와의 관계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검증되어 온 변수이다. 각 선행연구들에서 또래관계를 측정하는 변수들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으나 분석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 관계 변수들 중에서는 적극적인 변수 선택이나 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차 데이터(secondary data) 조사 항목에 기반 하여 선정하였다. 설문 문항에 또래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변수들은 또래와의 의사소통, 또래와의 신뢰, 또래로부터 소외가 있다. 이중 또래들과의 의사소통 변수와 또래 간 신뢰 변수는 측정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많고, 실제 이 두 변수 간 상관관계 역시 .74로 높게 나타나서, 두 변수를 모두 선택하지 않고 두 변수 중에서 측정 문항 신뢰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난 또래들과의 의사소통 변수를 선정하였다.

지역사회체계 요인 중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항목들 중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문항으로는 거주지역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있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변수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 친밀감, 지역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환경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3. 주요 분석방법 :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교사 관계 점수를 사용하여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적 분석방법은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의 목적은 군집분석과 같이 변수 간 유사한 값을 갖는 관찰대상들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다. 이것은 다양한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조합들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위 집단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데 적합한 방식이다(이정은, 2010).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PA)은 전통적인 군집분석에 비해 방법론상으로 몇 가지 장점이 있다(Miller et al., 2009). 우선 LPA는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각 유형에 속한 모든 개인에 대한 추정된 확률값을 설명하는 유형 멤버십 확률(probabilities of class membership)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잠재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최적의 잠재유형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LPA를 통한 유형 수를 결정하는 데는 적합도 지수, 통계적 유의도, Entropy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적합도 지수에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Sample-sized-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가 있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는 LMR_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한다(Lo et al., 2001). LMR_LRT는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정된 χ^2 차이로 검증한다. 즉, k개의 유형 모형과 k-1개의 유형 모형을 비교할 때 LMR_LRT의 p-value값이 유의하면 k개 유형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유형모형을 선택한다(Nylund et al., 2007).

적합도 지수 값은 적응수족, Entropy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LMR_LRT 검증이 유의할수록 좋은 유형 구분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집단 구분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이들 기준과 함께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한다(McCrae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유형의 수와 프로파일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Mplus 5.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류된 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학교적응 유형분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생활 적응의 구성요소(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 교사관계 적응 변수) 값들의 조합이 유사한 청소년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 교사관계 적응 변수는 평균을 표준화 시킨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유형 집단 수 결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유형을 구성하는 4개의 구성 요소들의 점수를 평가하여 그 조합에 따라 2,349명의 학교생활 적응 유형을 분석하였다. 유형수가 2개인 모형부터 6개인 모형까지의 각종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2유형부터 6유형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우선 AIC, BIC, SSA_BIC를 기준으로 보면 6유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ntropy는 2유형에서 3유형으로 갈 때 증가하다가 4유형에서 다시 감소하고, 5유형부터 다시 증가한다. Entropy값만 보면 3유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LMR_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보면, 1유형보다는 2유형이, 2유형보다는 3유형이, 3유형보다는 4유형이, 4유형보다는 5유형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여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유형부터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5유형에 비해 6유형은 적합도가 나아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적합도 지수와 통계적 유의도 검증 결과를 종합해볼 때, 4유형과 5유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두 유형 중에서는 5유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5유형 모형을 보면 전체 다섯 개 유형 중에서 한 개의 유형의 경우 해당되는 사례수가 7개이며, 이것이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적합도 지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각 집단 최저 사례수 비율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4유형 모형을 가장 적합하게 분류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3>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결과 유형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비교

구분	2	3	4	5	6
AIC	25,395.417	24,899.799	24,810.854	24,740.997	24,704.021
BIC	25,470.320	25,003.491	24,943.374	24,902.326	24,894.159
SSA-BIC	25,429.0170.	24,946.301	24,870.298	24,813.365	24,789.311
Entropy	0.627	0.740	0.665	0.709	0.722
LMR_LRT	1,258.838	492.937	98.125	77.850	45.796
LMR_LRT p-value	0.000	0.000	0.0266	0.0239	0.6317
전체사례의 5%미만 유형 수	-	-	-	1	2

2) 학교적응 유형 분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349명의 청소년은 학교적응 구성 요소별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 유형에 각각 배치되었다. 각 유형의 규모와 특성은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적응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전체 분석대상의 절반에 해당되는 51%가 속해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네 가지 학교적응 구성 요소들은 모두 평균보다 조금 낮은 값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 첫 번째 유형은 부적응 근접 유형(approach to maladjustment class)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분석대상의 35%가 속해있는 유형으로 네 개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 평균값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인다. 구성요소중 상대적으로 학습활동 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우관계 적응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은 프로파일(profile)상 적응 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닌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첫 번째 유형만큼 높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응 근접 유형(approach to adjustment class)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분석대상의 7%가 해당되는 유형으로 네 구성 요소 모두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규칙 적응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습활동 적응, 교우관계, 교사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네 요소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적응 수준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기에 이 유형을 적응 우수 유형(excellent adjustment class)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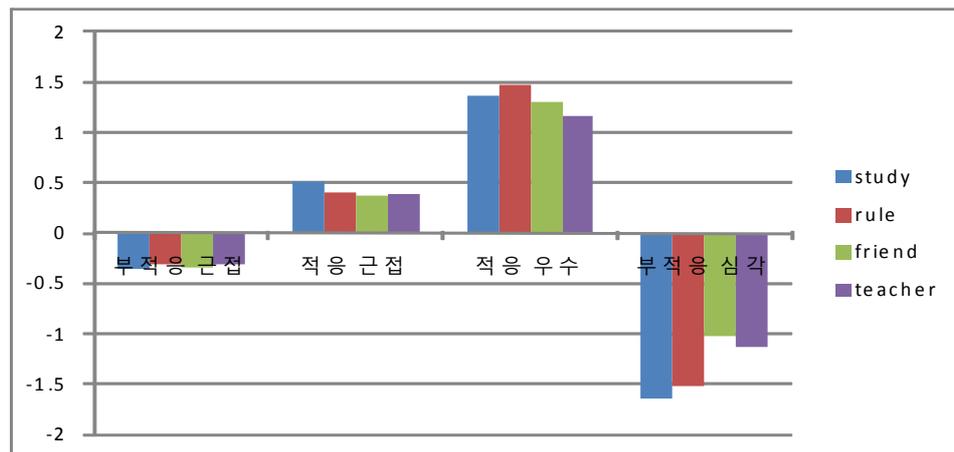
네 번째 유형은 분석대상의 7%가 해당되는 유형으로 세 번째 유형과 동일한 비율을 갖고 있다. 이 유형은 네 가지 학교적응 구성요소가 모두 평균보다 심하게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학습활동 적응과 학교 규칙 적응 수준이 타 요소에 비해 더 심각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러 외현화 문제 및 내재화 문제에 취약할 가능성이 타 유형에 비해 높다고 판단되기에 부적응 심각 유형(severe maladjustment class)로 명명하였다.

<표 4> 표준화된 프로파일 유형별 구성요인의 표준점수

	부적응 근접 유형 n=1193(50.8%)		적응 근접 유형 n=821(35.0%)		적응 우수 유형 n=172(7.3%)		부적응 심각 유형 n=163(6.9%)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학습활동	-.394	.651	.615	.599	1.476	.663	-1.768
학교규칙	-.350	.697	.491	.648	1.643	.608	-1.641	.829
교우관계	-.369	.783	.454	.752	1.426	.665	-1.087	1.115
교사관계	-.344	.776	.482	.806	1.279	.722	-1.259	.915

* 학교적응의 4개 구성요소(군집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모두 Z-score로 전환시킨 값임.

각 유형별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 1]에는 학교적응 4유형을 각 요소별 막대 그래프로 그려서 제시하였다.



[그림 1] 학교적응 4유형 비교(bar-graph)

2. 학교적응 유형별 인구사회적 특성

학교적응 유형별로 각 유형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학교적응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분석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을 종속변수로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학교적응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 가구 소득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부모 구성 형태에는 학교적응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의 학력은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 우수 유형과 부적응 심각 유형의 경우 매우 대조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적응 우수 유형의 경우 대졸이상 비율이 높은 반면, 부적응 심각 유형은 고졸이하의 비율이 높았다. 유형에 따른 학력 분포 차이는 적응 우수 유형, 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순으로 고학력 비율이 높고, 저학력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연간 가구소득 역시 적응 우수 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차이는 유의하였다.

가족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적응 우수 유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적응 심각 유형의 경우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과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 조부모와 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구성형태 역시 적응 우수 유형에서는 친부모로 구성된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한 쪽만 친부 또는 친모인 경우와 부모님 모두 안 계시는 비율은 부적응 심각 유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적응 유형별 분석대상의 인구사회적 차원 특성(%)

구분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X ² , F
성별	남	50.3	47.7	56.4	52.8	5.019
	여	49.7	52.3	43.6	47.2	
부학력	중졸이하	3.9	2.6	1.2	7.5	87.686***
	고졸	48.2	37.4	25.8	52.1	
	전문대졸	13.2	12.7	16.0	8.9	
	대졸	30.7	39.2	42.3	26.7	
	대학원졸	4.0	8.2	14.7	4.8	

구분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X ² , F
모학력	중졸이하	3.9	2.7	1.2	8.6	74.646***
	고졸	62.6	52.5	43.5	61.9	
	전문대졸	12.4	14.2	13.7	8.6	
	대졸	19.2	27.7	33.9	19.4	
	대학원졸	2.0	3.0	7.7	1.4	
연간 가구소득 (만원)	평균	4,223.69	4,603.44	5,423.66	3,522.64	11.825*** 1-3, 2-3, 2-4, 3-4
	표준편차	3480.77	2708.71	3562.56	2,062.66	
가족 구성 형태	부모+자녀	77.2	79.8	87.8	66.3	37.351***
	한부모+자녀	10.4	8.3	4.7	16.0	
	(한)조부모+자녀	1.3	.7	0	2.5	
	(한)조부모+부모+자녀	7.6	8.8	4.1	8.6	
	(한)조부모+한부모+자녀	2.7	2.0	2.9	4.9	
	기타	.8	.5	.6	1.8	
부모 구성 형태	친아버지+친어머니	83.6	88.0	89.5	74.2	46.543***
	친아버지만	5.4	4.0	2.3	12.9	
	친어머니만	7.5	5.5	5.2	9.8	
	친아버지+새어머니	1.2	1.3	1.2	.6	
	친어머니+새아버지	.8	.6	1.7	0	
	부모님 모두안계심	1.5	.5	0	2.5	

3. 학교 적응 유형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생태체계적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지역요인 중에서 학교적응 잠재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집단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각 체계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체계에 해당되는 변수중 성별 변수는 적응 우수 유형과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과 부적응 근접 유형의 비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적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체계에 해당되는 변수로 함께 투입된 자아탄

력성 변수는 모든 유형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다른 세 유형에 속하기 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위험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체계 변수중 부모감독 변수는 모든 유형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감독 점수가 높을수록, 즉 부모가 자녀의 생활과 행동에 관심 갖고 적절하게 감독할수록 다른 세 유형에 속하기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애정 변수는 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과 부적응 심각 유형의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 간의 비교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애정 점수가 높을수록 즉,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많이 할수록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래체계 변수 중에서 또래와의 의사소통 변수는 부적응 근접 유형과 부적응 심각 유형의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 간의 비교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부적응 심각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래 소외 변수는 부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근접 유형간의 비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래 간 소외를 더 많이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사회체계 변수인 본인의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변수는 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우수 유형 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유형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거주 지역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적응 심각 유형이나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적응 심각 유형이나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교적응 잠재유형 영향 요인

기준유형	비교유형	변수		계수	표준오차
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	개인	성별	-0.064	.102
			자아탄력성	-1.159***	.137
		가족	부모감독	-.593***	.090
			부모애정	-.360***	.089
		또래	또래의사소통	-.421***	.105
			또래 소외	.172*	.083
		지역	지역사회	-.314**	.098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개인	성별	-.435*	.192
			자아탄력성	1.857***	.271
		가족	부모감독	1.075***	.223
			부모애정	.051	.175
		또래	또래의사소통	.877***	.192
			또래 소외	.219	.137
		지역	지역사회	.148	.176
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개인	성별	-.206	.195
			자아탄력성	-.1791***	.254
		가족	부모감독	-1.303***	.156
			부모애정	-.534**	.159
		또래	또래의사소통	-.380*	.191
			또래 소외	.162	.159
		지역	지역사회	-1.082***	.187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개인	성별	-.371 †	.201
			자아탄력성	3.16***	.285
		가족	부모감독	1.668***	.228
			부모애정	.411*	.181
		또래	또래의사소통	1.297***	.201
			또래 소외	.047	.146
		지역	지역사회	.462*	.185

기준유형	비교유형	변수		계수	표준오차
부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개인	성별	-.142	.181
			자아탄력성	-.632**	.233
		가족	부모감독	-.710***	.140
			부모애정	-.174	.144
		또래	또래의사소통	.041	.173
			또래 소외	-.010	.148
		지역	지역사회	-.768***	.174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개인	성별	.229	.262
			자아탄력성	-3.648***	.358
		가족	부모감독	-2.378***	.262
			부모애정	-.585**	.225
		또래	또래의사소통	-1.257***	.258
			또래 소외	-.057	.201
		지역	지역사회	-1.230***	.246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구성 요소(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프로파일(profile) 형태에 따른 자연발생적 집단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각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변수를 검증하였다.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결과 학교적응 잠재 유형은 적합도 지수와 통계적 유의도 검증과 같은 통계적 차원과 해석적 차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이 갖는 특성에 기반 하여 4개의 잠재유형은 부적응 근접 유형(approach to maladjustment class), 적응 근접 유형(approach to adjustment class), 적응 우수 유형(excellent adjustment class), 부적응 심각 유형(severe maladjustment class)으로 명명되었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분석대상인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인 51%가 부적응 근접 유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부적응 근접 유형은 학교적응의 네 구성요소들이 각각 평균에는 조금씩 못 미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 두 명중 한명 꼴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영역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적응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교적 잘 적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학교적응을 잘 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 못지 않게 나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는 일종의 경계선에 있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절반 정도가 있고, 평균 보다 약간 높은 학교적응 수준을 보이는(적응 근접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35% 정도 있기에 선별적인 개입 보다는 보편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개입 시기도 중학교 입학 후에 학교 적응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나쁘지 않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중학교에서의 변화되는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전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대상 청소년 중에서 약 7%는 학교적응이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는 부적응 심각 유형(severe maladjustment class)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각종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부적응 심각 유형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우선 개입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학교 적응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적응 심각 유형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학교적응 구성 요소 중에서도 특히 학습활동과 학교 규칙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수준보다 수업과 교과과정, 학교 규칙에 적응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적응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하위 요소들 간에 특정 인과관계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에 흥미를 갖고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하고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주고,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이외에 학교 수업과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입 방안은 심각한 학교생활 부적응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에게 선별적으로 개입하는데 그치지 말고, 초등학교로 확대되어 적용되면 청소년 학교 부적응 예방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절적

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규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다면, 청소년 시기의 학교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적응 잠재유형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학교적응 영향 요인별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변수 중심적 접근 연구 결과와 본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 연구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석결과 구성요소들이 개별 유형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용상 확연하게 구분되는 프로파일 특징으로 학교적응 유형이 구분되지 않고 구성요소별 적응 수준의 높낮이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접근방식의 분석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적응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별 변수의 경우 변수중심적 접근방식이 적용된 연구들 간에도 일관된 방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개인체계에서는 성별은 일부 유형간 비교에서, 자아탄력성은 모든 유형간 비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적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체계변수 중 자아탄력성과 가족체계 변수 중 부모감독 변수는 모든 유형간 비교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적응 유형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과 부모감독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운주, 2004; 김옥선 외, 2005; 황숙영, 2007; 이경남, 2008; 하현주 외, 2008; 하명순·이순복, 2009; 변은주·심혜숙, 2010; 광민경·서보준, 2011, 손보영 외, 2011; 이정화·고은영, 2011; 한신애·문시백, 2011) 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다른 세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위험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감독도 이와 마찬가지로 결과였다. 이는 각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일수록, 각 유형별 부

모들이 자녀에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절한 감독을 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적응 수준을 보이는 유형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유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양육태도로서의 부모감독의 중요성과 자녀와의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이 학교적응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가족체계중 부모애정 변수는 2개 유형간(적응 근접 유형-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부적응 심각 유형) 비교를 제외한 유형 비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체계 중 의사소통 변수는 부적응 근접 유형과 부적응 심각 유형간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비교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더 나은 학교적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래간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은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교적응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문은정·심희옥, 2001; 문은식·김충희,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정규석, 2004; 정미영·문혁준, 2007)와 일치한다.

한편 또래 소외 변수는 부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근접 유형간의 비교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근접 유형 사이에는 아주 큰 프로파일 상 특징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학교적응 구성요소 전반에 걸친 평균 이하와 평균 이상의 수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또래 소외 변수는 다른 유형간 비교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이 두 유형 간 차이를 결정짓는 데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또래 속에서 소외감을 덜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또래 소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인식변수는 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우수 유형을 제외한 유형들간 비교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감과 신뢰, 안정감이 높을수록 부적응 심각 유형이나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이나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적응 심각 유형에 비해서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는 지역사회 환경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친다는 연구(김기형, 2006; 정소희·권유형, 2010; Leventhal & Brooks-Gunn, 2000)가 다른 학교적응 관련 요인 연구들에 비해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닌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잘 지낼수록,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계속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환경에 대한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식 공유와 지역 유대감 및 신뢰 증진 정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방범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학교적응 측정에서 학업 성취 변수가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 교사관계 적응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존 학교적응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온 학업성취 변수는 본 연구에 사용된 2차 데이터(1차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없었기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잠재 유형과 외현화 문제·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학교적응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 이들 관계를 분석한다면 학교 적응 잠재 유형 구분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2차년도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변수들이 추가될 예정이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에 한정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은 표본 특징적(sample-specific)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대상은 전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에 분석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년별, 학교급별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가구 청소년이나 한부모 가정, 조

손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을 분석하고, 나타난 잠재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변수중심적(variable-centered approach)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찰대상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함으로써 분석대상 청소년들이 갖는 학교적응 하위 구성영역들의 다양한 프로파일(profile)과 그 조합의 형태를 파악하였다는데서 기존연구와의 학문적 차별성이 있다. 또한 네 가지 학교적응 구성영역별로 어떤 조합을 이루는지, 각 유형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우선적으로 적응에 취약한 형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되는지, 우수한 적응 형태를 보이는 유형은 어떤 것인지 등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교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학교적응 유형의 차이, 학교형태별 학교적응 유형의 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적응 유형의 변화와, 비행과 학교적응 유형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해 보다 의미있고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민경·서보준(201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조손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제21권 제1호, pp. 75-112.
- 권영옥·이정덕(1996).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제18권 제10호, pp. 65-79.
- 김기환·전명희(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9호, pp. 127-152.
- 김기형(2006).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도탈락 요인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문혜·강문희(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제20권 제4호, pp. 195-211.
- 김신애·이형실·이수경(2008). 남녀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0권 제4호, pp. 1-17.
- 김옥선·오윤자·최명구(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3호, pp. 761-777.
- 김혜래·최승희(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30호, pp. 159-182.
- 노숙영(1997).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9권 제2호, pp. 19-33.
- 문은식·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pp. 219-241.
- 문은정·심희옥(2001).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2권 제4호, pp. 99-113.
- 변은주·심혜숙(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1권 제4호, pp. 1753-1765.

- 손보영·김양희·김수정·박지아(2011).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pp. 419-4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진희(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유형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기정학회지, 제41권 제9호, pp. 121-134.
- 유안진·이점숙·서주현(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3호, pp. 161-180.
-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5호, pp. 211-224.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2호, pp. 383-398.
- 이수경(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준(2004).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 요인 연구 - 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5권 제3호, pp. 435-449.
- 이윤화(2010). 조손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4호, pp. 137-158.
- 이정은·조미형(2007). 남녀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79-102.
- 이정은(2010).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 적합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화·고은영(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지지, 지역사회에

- 대한 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 대회 자료집, pp. 53-7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지민(200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5호, pp. 1021-1033.
- 이진숙(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pp. 47-61
- 이혜순(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pp. 407-427.
- 임수경·이형실(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pp. 169-183.
- 임성윤(2006).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 연구, 제12권 제4호, pp. 339-379.
- 장호성(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1호, pp. 235-252.
- 정미영·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제28권 제5호, pp. 37-54.
- 정유진(2000).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의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미·장영애(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1호, pp. 91-102.
- 정소희·권유경(2010). 지역사회SES,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학교적응과 공격성.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3호, pp. 379-402.
- 정익중·권은선·박현선(2011). 아동의 학업성취 발달궤적의 예측요인과 발달산물. 한국아동복지학, 제34호, pp. 63-93.
- 조미형·최상미·엄태영(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친구·교사에착과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5권, pp. 81-97.
- 조윤숙·이경남(2010).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제8호, pp. 27-37.
- 채경립(2004). 거주지역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인제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2호, pp. 199-220.
-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명순·이순복(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18권 제3호, pp. 247-258.
- 하현주·박원모·박명숙·천성문(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제7권 제1호, pp. 1-19.
- 한신애·문시백(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pp. 355-376.
- 현안나(2009). 초등학생들의 잠재적 일탈집단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1호, pp. 197-234.
- 황숙영(2007). 부모애착, 부모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unola, K., Stattin, H., & Nummi, J. E.(2000). Adolescents's achievement strategies, school adjust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9 No. 2, pp. 289-301.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9, pp. 140-153.
- Bascoe, S. M., Davies, P. T., Sturge-Apple, M. L., & Cummings, E. M.(2009).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peer information processing, and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5 No. 6, pp. 289-301.
- Block, J., & Kreman, A. M.(1996). IQ and ego0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349-361.
- Cheng, H., & Furnham, A.(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 style, self-esteem and self 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5, pp. 1-21.

- Daignault, I. V., & Hebert, M.(2009). Profiles of school adaption: Social behavioral and academic functioning in sexually abused girls. *Child Abuse & Neglect, Vol. 33*, pp. 102-115.
- Danielsen, A. G.(2009). School 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02 No. 4*, pp. 303-318.
- Karrirker-Jaffe, K. J.(2006). *Neighborhood and family effect o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three studies using multileveled growth curve model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Leventhal, T., & Brooks-Gunn, J.(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up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6*, pp. 309-337.
- Lo, Y., Mendell, N. R., & Rubin, D. B.(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Vol. 88*, pp. 767-778.
- Marsh, H. W.(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 concep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 2*, pp. 77-172.
- Marsh, H. W., Ludtke, O., Trautwein, U., & Morin, A. J. S.(2009). Classical Latent Profile Analysis of Academic Self-Concept Dimens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16*, pp. 191-225.
- McCrae, J. S., Champman, M. V., & Christ, S.L.(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76 No. 4*, pp. 468-481.
- Miller, H. A., Turner, K., & Henderson, C. E.(2009) Psychopathology of sex offenders: a comparison of males and femal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36*, pp. 778-793.
- Nash, J. K.(2002). Neighborhood effects on sense of coherence and educational behavior in students at risk of school failure. *Children and Schools, Vol. 24*, pp. 73-89.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O.(2007). Deciding on the number

-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14*, pp. 535-569.
- Shaffer, D. R.(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 Parke, J. C.,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2*, pp. 357-389.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32*, pp. 8-47.
- Plunkett, S.W., Henry, C. S,m Robinson, L. C., Behnle, A., & Falcon P. C.(2007).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 16 No. 6*, pp. 760-772.
- Vermunt, J. K. & Magidson, J.(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In J. A. Hagenaars & McCutcheon(Ed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pp. 89-1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lley, M. E., & Grogan-Kaylor, A.(2006). Persp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Vol. 55*, pp. 94-104.
- Thompson, R. A.(1987). Creating instructional and counseling partemerships to improve the academic performance of underachievers. *School Counselor, Vol. 34*, pp. 289-296.

ABSTRACT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Testing Eco-system Variables as Predictors of Latent Classes

Cho, Jeong-A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atent clas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n order to do this, data harvested from the Korea Child & Youth Middle School Panel Data was used in latent profiles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Four distinct profiles of school adjustment were identified. They are listed here as follows; approach to maladjustment class, approach to adjustment class, excellent adjustment class, severe maladjustment class.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revealed that gender, self-resiliency, parental supervision, degrees of parental affection, peer communication, peer alienation, and perceptions of community were all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atent clas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implications for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limitations of current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latent class, person-centered approach, latent profile analysis

투고일 : 12월 12일, 심사일 : 1월 17일, 심사완료일 : 2월 16일

* Senior Researcher,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